■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81-118.
http://doi.org/10.17948/kcs.2022..96.81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1 】

# 『金石集帖』의 여성 묘주 탁본 연구*

박영민(朴英敏)**

목 차

1. 서론
2. 祔左之禮와 從葬
3. 祔左之禮를 하지 못한 여성들
4. 여성 묘주의 비석, 누구의 삶도 기억되어야 한다
5. 여성 묘주, 碑文의 형식을 새롭게 하다
6. 마무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이하 교토대학) 소장 『金石集帖』에 수록된 女性墓主 拓本을 분석하여 여성 묘주 碑石과 碑文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남편의 비석에 새겨진 "祔左"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비석은 장례문화에 수반되는 행위인데 여성의 장례에서는 "祔左의 禮"를 중시하였다. "부좌"는 남편의 무덤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묻혔다는 뜻으로 여성이 죽음 이후에도 남편을 따른다는 從葬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부좌의 예"를 행하지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않은 여성들이 있었다. 남편의 무덤의 위치가 부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풍수적인 이유 등으로 부좌를 하지 못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 이외에는 자식이 없이 일찍 죽은 여성들이 부좌를 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갔다. 친정에서는 자식이 없이 요절한 딸의 일생을 출산, 양육, 출가외인 등의 관념으로 재단하지 않고 비석을 세워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였다. 조선전기 사림 집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동시에 남편이나 시댁 관련 정보를 비문에 새겨 딸 혹은 누이가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부좌를 하지 못하였다는 오해를 警戒하고자 하였다.

다음, 조선시대는 어떤 여성의 비석을 세웠던가를 밝혔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비용과 인력과 공력이 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석의 여성묘주가 반드시 높은 관직을 역임한 관료의 아내나 어머니, 자식을 낳아 잘 기른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이러한 여성묘주의 비석은 조선시대에 누구의 삶도 기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여성묘주 碑文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묘도문자의 형식은 묘주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묘주의 비문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이 생성되었다. 撰者는 부부 공동의 비석을 기획하였고, 공동撰者의 비석이 세워졌으며, 비석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와 나와 나의 자녀가 함께 존재하는 애틋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의 삶과 죽음,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조선시대의 여성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자 하였다. 단 비석이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비석을 통해 여성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층 여성에 대한 이해로 제한될 한계가 있다.

주제어: 『金石集帖』, 탁본, 여성묘주, 묘표, 묘비, 묘갈, 비석, 祔左.

## 1. 서론

본 연구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이하 교토대학) 소장 『金石集帖』에 수록된 女性墓主 拓本을 분석하여 여성묘주 碑石과 碑文의 특징을 다각도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은 金在魯(1682-1759) 및 그의 후손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편찬된 拓本集으로 國內外 唯一本이다. 총 219책으로

약 2,083종의 墓碑/非墓碑 탁본이 수록되어 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비석 탁본집 중 가장 방대한 자료집이다. 그러나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은 완질본이 아니며, 결본이 있다. 그 결본 중 1책(得)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1] 그리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금석집첩』은 교토대학 소장본 219책, 규장각 소장본 1책, 총 220책이다. 앞으로 결본의 행방을 찾아 『금석집첩』 완질본을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금석집첩』의 자료적 가치는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비석 탁본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완전한 탁본집이라는 점에도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탁본집은 대부분 비석 전체의 탁본이 아니라 일부의 탁본을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비석 전모를 알기가 어렵다. 2004년부터 구축된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에 제공된 탁본 이미지도 전체가 아닌 일부의 탁본에 불과하다. 그런데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은 비석 전체의 탁본이고, 탁본의 질적 수준 또한 매우 우수하며, 탁본을 할 당시 흐릿한 글자에 대해서는 문헌 등을 조사하여 수정을 가하기도 하여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시대 최고의 비석 탁본 집대성인 『금석집첩』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록된 탁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금석집첩』 연구는 자료에 대한 개략적 소개 및 서지목록 작성이 이루어졌고, 수록된 묘비/비묘비 탁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석집첩』의 존재는 불과 15년 전인 2007년에 밝혀졌다.[3] 그 이후 2011년에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인 목록집 『金石錄』(만송문고본, 1책)과

1) 1935년에 가쓰라기 스에하루(葛城末治), 1944년에 마에마 코사쿠(前間恭作)가 조선총독부에 『金石集帖』이 39책 소장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책이 규장각으로 옮겨졌다고 하였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금석집첩』이 1책(得)만 소장되어 있다.(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亞細亞文化社, 1978, 1-734면.)

2) 2019년에 심경호 교수는 김재로와 그 후손이 『금석집첩』을 제작할 때 2질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에 『금석집첩』이 1책 소장되어 있는데, 그 책은 교토대학 소장본에도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이다.(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金石集帖에 대하여」, 『民族文化硏究』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3) 박진완 교수가 2007년 처음으로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 『金石集帖』이 소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자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 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 1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s://www.history.go.kr/)

탁본집『金石錄』(육당문고본, 28책)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있었고, 연구 결과 목록집『금석록』과 탁본집『금석록』의 편자가 모두 김재로인데 이 두 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4] 그 이유는 2014년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목록집『금석록』은 탁본집『금석록』이 아니라 바로『금석집첩』의 목록이었던 것이다.[5] 그런데 이때까지의 연구는 교토대학 소장『금석집첩』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2018년에『금석집첩』의 서지사항이 작성되는 성과가 있었다.[6] 그런데 이 서지사항에는 수정이 필요한 곳들이 있다. 이어 2021년에『금석집첩』219책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성과가 있었다. 총 219책의 등에 먹으로 쓴 천자문 글자가 있어 이 글자를 천자문 순서대로 배열하여 1-219책의 순서를 붙인 것이다.[7]

『금석집첩』의 탁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선 여성묘주 탁본을 대상으로『금석집첩』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단 왕비, 세자비, 후궁, 공주, 옹주 등 왕실 여성묘주의 탁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8] 비석, 비석의 탁본은 인물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여성의 죽음 이후에 지어진 행장, 제문, 묘지명 등은 여성의 생애나 일상 연구 등에서 이미 주목을 한 바 있다.[9] 그런데 여성의 墓表, 墓碑, 墓碣 등

4) 구자훈·한민섭,「金在魯『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한국실학연구』21, 한국실학학회, 2011, 237-302면.
5) 박철상,「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1-173면.
6) 藤本幸夫,『日本現存朝鮮本硏究 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1338-1890면.
7) 심경호,『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107-135면.
8) 여성의 비석은 대개 왕실 여성, 사대부가문 여성의 것이다. 평민층, 천민층에서도 비석을 세울 수는 있으나 비석을 세우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세울 수는 없다. 본고는 왕실 여성을 제외한 여성묘주 탁본을 우선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 왕실 여성묘주 탁본을 연구하기로 한다.
9) 강혜선,「조선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한국한문학연구』30, 한국한문학회, 2002, 7-36면; 황수연,「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61-192; 강혜선,「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국문학연구』13, 국문학회, 2005, 57-82면; 홍완표·권순형,「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 생활 연구: 염경애 묘지명을 중심으로」,『논문집』, 한경대, 2005, 185-195면; 최기숙,「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구술적" 포용성-"한문/언문"과 "말/글"의 중첩과 포용의 맥락」,『고전문학연구』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259-289면; 심경호,『한국한문기초학사』1책, 태학사, 2012,

비석 및 탁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10] 이에 본 연구는 『金石集帖』 수록 여성묘주 비석의 탁본 분석을 통해 여성묘주 비석과 비문의 특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비석이 장례문화와 관련된다는 점에 기반하여 여성의 무덤을 만들 때 가장 중시한 祔左의 禮를 주목한다. 부좌는 남편의 무덤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묻혔다는 뜻이고 비석에는 부좌 관련 정보를 새기는 일이 많았다. 이에 조선시대 여성묘주의 부좌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 조선시대는 어떤 여성의 비석을 세웠던가를 밝힐 것이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비용과 공력이 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석의 여성 묘주가 반드시 높은 관직을 역임한 관료의 아내나 어머니, 자식을 낳아 잘 기른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여기서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여성인식을 재고할 여지가 생긴다. 다음, 여성묘주 碑文의 형식을 분석할 것이다. 묘도문자의 형식은 묘주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묘주의 비문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이 생성되었다.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의 삶과 죽음,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밝히고 조선시대의 여성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성묘주 비석의 특징, 여성묘주 비석을 세운 이유 등을 분석하다 보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비석을 통해 여성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층 여성에 대한 이해로 제한될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657-676면; 심경호, 「조선시대 여성 묘비에 관한 일 고찰」, 『한문학논집』 49, 근역한문학회, 2018, 273-350면;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107-135면 등 참조.

10) 묘지명은 관이나 돌 등에 새겨서 묻는 것, 제문은 제사 때에 읽는 것이다. 비석은 묘 곁에 세운 것으로 묘표, 묘비, 묘갈 등으로 구분된다.

## 2. 祔左之禮와 從葬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남성묘주의 묘표·묘비·묘갈 등 비석의 前面 즉 陽記에 묘주의 封爵·관직·본관·이름 등을 새기고 이어서 그의 아내의 봉작·본관·성 등을 새겼는데, 그 끝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祔左"·"祔右" 등을 새겼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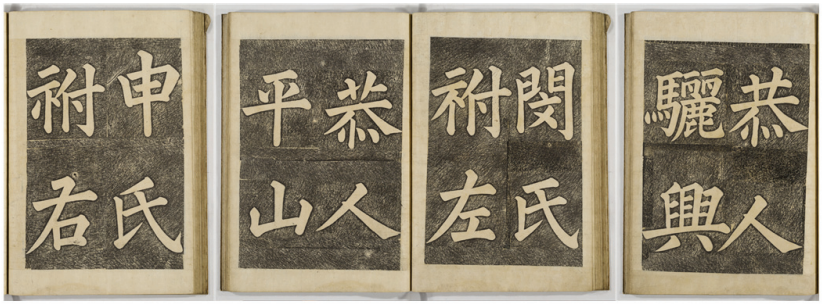
"祔左"는 부인의 묘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남편의 묘 왼쪽에 두었다는 뜻이다. 방향은 남편의 묘의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할 때를 기준으로 왼쪽이다. 조선시대는 이 "祔左"를 儀禮의 기본으로 여겼다. 부인의 묘를 남편의 묘 왼쪽에 두는 것은 제사에서 오른쪽을 높이고 왼쪽을 낮추는 관습에 기인한 것이다.("祠內之位, 右尊左卑")[11] 부인의 묘를 남편의 묘 오른쪽에 두는 "祔右"는 예외적인 경우이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취부인과 재취부인 등이 있을 때에 "부좌"와 "부우"를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묘지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李瀷은 "부인의 봉분을 오른쪽에 祔葬하는 것은 朱子가 劉夫人을 장사 지낼 때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예법은 아닙니다."[12]라고 하였다.

왕릉의 경우에도 묘를 만들 때 부좌·부우를 지켰고, 비석을 세울 때에 부좌·부우를 새겼다. 그때 왕과 왕비를 하나의 비석에 나란히 새긴 경우가 있고, 두 개의 비석에 따로 새긴 경우가 있는데, 모두 부좌·부우를 새겼다. 숙종과 인현왕후의 경우 하나의 비석에 나란히 새겼는데, "朝鮮國肅宗大王仁顯王后祔左"라고 행 구분을 하지 않고 죽 이어서 새겼다. 그리고 繼妃 인원왕후는 비석을 달리하였으나 "朝鮮國仁元王后祔右岡"이라고 새겨 숙종의 明陵 묘역 內 오른쪽 언덕에 묘를 썼음을 밝혔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崇陵도 하나의

11)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卷第十三, 「答問 講學論禮, 答李士亨問 喪禮○十一月十三日」(『韓國文集叢刊』142, 한국고전번역원.)

12) 이익은 "만약 부득이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면, 饌品을 진설하는 先後도 의당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차례대로 설 때는 上下의 位次를 바꾸어서는 안 되며, 신주가 사당에 들어갈 때에도 봉분의 위차로 인하여 그 右上의 자리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李瀷, 『星湖先生全集』卷之三十三, 「答人 戊辰」, 『韓國文集叢刊』199, 한국고전번역원.) 여기서도 오른쪽을 높이고 왼쪽을 낮추는 생각이 드러난다.

비석에 "朝鮮國顯宗大王崇陵 / 明聖王后 祔左"라고 새겼다. 영조의 元陵의 경우, 비석을 달리하여 "朝鮮國英祖大王元陵", "朝鮮國貞純王后祔左"를 새겼다. 즉 비석을 따로 세우고도 "부좌"·"부우" 등을 새겼던 것이다.



〈그림 1〉〈通德郎金公致彦之墓〉,『金石集帖』收(續)

『금석집첩』을 편찬한 김재로 및 그의 형제, 아들, 손자의 탁본을 보면 청풍 김씨 집안에서는 아내를 祔左하는 禮를 비교적 충실하게 지킨 듯하다. 往(續)책에는 金在魯와 아들 金致一, 동생 金若魯, 손자 金鍾純 등 청풍 김씨 집안 남성 4代의 비석 탁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4인 모두 아내의 묘를 祔左하였다. 〈그림 1〉은 그 중 金致彦의 비석 陽記의 탁본인데 초취부인 민씨와 재취부인 신씨가 있어 부좌, 부우를 모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祔左之禮", "以禮祔左"는 신하나 처첩의 靈柩를 제왕이나 남편의 묘 곁에 장례지내는 것인데, 후손들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자 했던 왕후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13]라는 의미로도 이해했다. 즉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위로 부좌나 부우 등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金柱臣(1661-1721)은 백부가 백모와 別葬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일을 기록하며, 백부가 부모님을 부좌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과 아내의 무덤도 부좌하지 말고 별장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14] 백부가 부모님의 묘를 부좌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묘지가

13)『일성록』, 순조 5년 1805년 5월 16일, 한국고전번역원.

협소하였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는 부모님의 묘를 만들 때에 부좌의 예를 행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표1〉 碑石의 祔左, 祔右의 사례

| 연번 | 수록 | 남편 | 부인 | 비고 |
|---|---|---|---|---|
| 1 | 往(續) | 金公在魯墓 | 貞敬夫人靑松沈氏祔左 | 往(續)에는 4인의 탁본이 수록되었는데, 모두 부인의 부좌 기록이 있다. |
| 2 | 往(續) | 金公致一之墓 | 淑人豐山洪氏祔左 | |
| 3 | 往(續) | 金公若魯墓 | 貞敬夫人延安李氏祔左 | |
| 4 | 往(續) | 金公鍾純墓 | 安人靑松沈氏祔左 | |
| 5 | 秋(續) | 金琇之墓 | 配安東淑人金氏祔左 | 秋(續)에는 9인의 탁본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4인의 부좌 기록이 있다. |
| 6 | 秋(續) | 金致垕墓 | 贈貞敬夫人完山李氏祔左<br>貞敬夫人密陽朴氏祔右 | |
| 7 | 秋(續) | 淸風金若淵之墓 | 達城徐氏南陽洪氏祔左 | |
| 8 | 收(續) | 金公諱取魯墓 | 貞敬夫人韓山李氏祔左<br>貞敬夫人鄭州氏祔前左<br>貞敬夫人南陽洪氏祔右 | 收(續)는 5인의 탁본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 4인의 부좌, 부우 기록이 있다. |
| 9 | 收(續) | 金君必魯之墓 | 慶州李氏祔左 | |
| 10 | 收(續) | 金公致仁之墓 | 贈貞敬夫人完山李氏祔右<br>貞敬夫人達城徐氏祔左 | |
| 11 | 收(續) | 金致彦之墓 | 恭人驪興閔氏祔左<br>恭人平山申氏祔右 | |
| 12 | 萬(續) | 趙都正鼎彬墓表 | 贈淑夫人杞溪兪氏祔左 | 萬(續)에는 12인의 탁본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9인의 부좌, 부우 기록이 있다. |
| 13 | 萬(續) | 鄭公稷之墓 | 宜人文化柳氏祔左 | |
| 14 | 萬(續) | 琴沔川郡守之墓(元福) | 淑人坡平尹氏之墓 | |
| 15 | 萬(續) | 李公應龍墓 | 淑人南陽洪氏祔左 | |
| 16 | 萬(續) | 宋溥之墓 | 淑人文化柳氏祔左 | |
| 17 | 萬(續) | 任濬之墓 | 淑人殷豐申氏祔右 | |
| 18 | 萬(續) | 宋公炳夏墓 | 贈貞夫人安定羅氏祔左 | |
| 19 | 萬(續) | 尹公諱扶之墓 | 淑人贈貞夫人羅州林氏祔左 | |
| 20 | 正(續) | 南公溟羽之墓 | 淑人和順崔氏祔左 | 正(續)에는 6인의 탁본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3인의 부좌, 부우 기록이 있다. |
| 21 | 正(續) | 金公濟謙之墓 | 貞夫人恩津宋氏祔左 | |
| 22 | 正(續) | 南公溟羽之墓 | 淑人和順崔氏祔左 | |
| 23 | 惟(續) | 金省行之墓表 | 豐山洪氏祔 | 惟(續)에는 5인의 탁본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1인의 부좌 기록이 있다. |

14) 金柱臣, 『壽谷集』卷之五, 「伯母淑人韓山李氏墓誌」, "甲申四月, 移窆于溫陽郡北二十里範圍村向卯之原, 正郎府君墓, 在全義素谷貞孝公兆次, 府君常以貞孝公墓地狹, 元配閔夫人未克祔左爲恨, 遺命別葬焉."(『韓國文集叢刊』176, 한국고전번역원.)

부인의 묘의 위치는 祔左·祔右뿐만 아니라 祔前·祔後·祔下 등도 있었다. 부좌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건에 따라 남편의 묘의 왼쪽·오른쪽·앞·뒤·아래 등에 두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祔"가 "穴"·"壙"·"室"·"櫃"를 함께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편의 묘를 기준으로 왼쪽에 아내의 묘를 두되, "穴"·"壙"·"室"·"櫃"를 같이 하기도 하고, 달리하기도 하였다. 封墳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경우, 산봉우리를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15] 부인의 묘가 남편의 묘와 다른 언덕에 있어도 남편의 묘가 있는 언덕을 기준으로 좌측에 두었으면 "부좌"의 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 領議政 金在魯가 의론하여 이르기를, " (…) 卒哭祭를 지낸 뒤에 祔祭를 거행하니, 祔라는 것은 따른다는 뜻으로 꼭 同室合窆를 한 뒤에 祔라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 이 두 왕후의 능은 이미 대왕의 능과 같은 局 안에 있어서 하나의 陵號로 통일되었으므로, '祔'자를 쓰는 것이 조금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 領敦寧 趙顯命이 의론하여 말하기를 " (…) 祔란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부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대저 따르게 한다는 뜻이지, 꼭 묘혈을 같이하는 것만을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두 왕비의 능은 비록 대왕의 능과 산등성이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에 같이 봉안하였으니, 이를 일러 從葬이라고 합니다. 이미 從葬을 한 이상 '부' 자를 써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16]

영조 22년 1746년 12월 23일에 穆陵의 비석에 두 왕비의 陵의 위치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에 대한 의론이 있었다. 그때 여러 대신들이 모두 "祔"자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두 왕비의 능이 각기 다른 산등성에 奉安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금석집첩』의 편찬자 金在魯는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祔祭, 祔에 대해 "祔者, 從之之義, 非必同室合窆而後稱祔也,"라고 의견을 밝혔다.

---

15) 祔左의 형태는 다양하게 실천되었다. 祔左異穴, 祔左異室, 祔左異封, 同塋而異封, 祔左于公墓同岡, 同塋異封, 祔左異塋, 異壙而同封 등이다. 합장할 경우도 었었는데 그 때에도 "祔左"는 실천되었고, 合爲一墳, 同窆而祔左, 祔左合墓, 合封祔左, 同壙祔左, 合葬祔左 등으로 표기되었다.

16)『조선왕조실록』, 영조 22년 병인(1746) 12월 23일(갑신), 한국고전번역원, "領議政金在魯議曰, 禮云, 卒哭而祔, 祔者, 從之之義, 非必同室合窆而後稱祔也. 以此推之, 今此二王后陵, 旣在大王陵一局之內, 而統爲一陵號, 則書祔字, 少無不可 (…) 領敦寧趙顯命議曰, "祔字之書不書, 只從祔字意義上看破則可知, 禮曰, '殷人卒哭而祔', 祔者, 以孫祔祖之謂, 大抵從之之義, 而未必以同穴而謂之祔也."

祔祭는 아내의 묘가 남편의 묘를 "따른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趙顯命도 祔祭는 아내의 묘를 남편의 묘 곁에 장사지낸다는 從葬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의 장례문화에서 여성의 죽음 이후의 자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즉 조선시대에 남편의 묘에 비석을 세우고 아내의 묘의 위치를 새긴 것은 이 從葬의 예를 행하였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비석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墓誌銘을 誌石에 새기고 묻는 것과 비교하여도 비용, 인력 등의 공력이 몇 배나 더 드는 어려운 일이었다. 여성의 비석을 단독으로 세우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비석을 따로 세우는 대신 남편의 비석 전면에 "祔左, 祔右, 祔後" 등을 새겨 아내의 무덤의 위치를 밝히고 아내가 종장하는 예를 행하였음을 밝히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다.

## 3. 祔左之禮를 하지 못한 여성들

### 1) 자식이 없이 요절한 여성의 삶과 비석

『金石集帖』에는 남성묘주의 비석에 부좌, 부우 등이 새겨져 있지 않은 탁본도 있다. 아내를 남편의 무덤 곁에 묻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또 부좌·부우 등을 하였으나 비석에 그 사실을 새기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즉 부좌, 부우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했더라도 비석에 새기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부좌의 예를 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남편의 묘역이 좁아서, 풍수의 문제 등으로 부좌·부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용인되었을 것이다.[17] 그 외에 자식이 없이 요절한 여성들의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금석집첩』에서 부좌, 부우 등의 禮를 행하지 못한 여성묘주와 그들의 죽음을 대하는 조선시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17) 鄭蘊, 『東谿集』, 「貞夫人姜氏墓標陰題」, "先君의 묘소가 고현 城山의 동쪽 지맥인 文冑洞에 있었으나 자리가 좁아서 祔葬할 수가 없었다."

『金石集帖』(難)[18]에서 광주 이씨(1495-1516) 묘갈의 탁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석 탁본의 뒤에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 李滋(1466-1499)와 어머니 廣州 安氏의 탁본 바로 뒤에는 李蕃의 탁본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딸인 광주 이씨의 탁본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이씨의 무덤은 남편의 무덤 곁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의 무덤 곁에 있다. 물론 광주 이씨가 남편 權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처음부터 부좌의 예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왜 권전이 죽고 난 뒤라도 부좌의 예를 행하지 않았을까? 또 광주 이씨는 시댁인 安東 權氏의 묘역에 묻히지 않고 친정의 묘역에 묻혔을까? 또 광주 이씨의 탁본이 친정 부모님의 탁본과 함께 수록되었다는 것은 광주 이씨가 죽고 시간이 흘러 김재로가 『금석집첩』을 편찬할 때에도 광주 이씨의 무덤이 친정 묘역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묘역의 위치가 같거나 비슷하면 탁본 시기도 비슷하고, 탁본첩의 편집할 때에도 같이 엮었던 듯하다. 다음은 광주 이씨의 묘갈명이다.

> 안동 권전에게 어진 배필이 있으니 이씨는 광주의 저명한 성씨이다. 그 선조는 遁村 李集(1327-1387)이고, 증조는 李克堪(1423-1465)이니 형조판서를 지냈고 좌익공신에 책훈되어 품계가 광성군에 봉해졌다. 돌아가시어 좌의정에 추증되셨고 시호는 문경이다. 조부는 世佑이니 경기도관찰사를 지내셨다. 아버지는 滋(1466-1499)이니 홍문관박사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뜻을 거슬러 함창군으로 나갔다가 함창에서 사간 安彭命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역시 광주의 사대부 집안이다.
>
> 이씨는 홍치 을묘년(1495) 9월 경자일에 한성의 집에서 나고 자랐다. 진실로 그 막내딸은 태어나면서 참으로 수려하면서 명랑하였다. 5세이던 1499년에 아버지 함창군수가 관저에서 돌아가시니 따라서 훼손하기를 망령되게 하지 않았고, 말과 웃음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여 어머니를 모셨고, 처신을 삼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으며, 용모와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씩씩하여 기쁨과 성냄을 드러내지 않았다. 갑자년(1504)의 난 때 오빠인 약수와 약빙이 멀리 영해로 유배를 당해 이별할 즈음에도 곁에서 모시고 효성을 정성스럽게 하여 안심시키고 위로하니 어머니의 마음도 날로 고요해졌다. 조상의 신위에 향을 살랐고, 매번 기일이나 큰 제사를 만나면 반드시 몸소 수고하며 음식을 만들었다. 일찍이 소학을 배웠으니 책은 또 그 아우 약해로 하여금 경사 중에서 규방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게

18) 교토대학 소장 『金石集帖』 1-219책의 책등에는 천자문이 한 글자씩 적혀 있다. 책 순서를 천자문 순서로 표기한 것이다.

하였고 읽으며 싫증내지 않았으며 倫綱의 변화에 이르러서는 개탄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女工의 안목과 열람이 문득 능히 정묘함을 지극히 다 하였다고 할 만하다. 정덕 갑술년(1514)에 권전에게 시집을 가니(20세) 예조참판을 지내고 의정부우참찬을 추증 받은 권주(1457-1505)의 며느리이다. 지아비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자애로우며 집안을 다스림이 너그럽고 간략하며 엄숙하였다. 병자년(1516) 3월 계사일에 이미 병으로 누웠다가 한양에서 요절하니 나이 22세였다. 병이 심해져 죽을 때에도 평소처럼 한결같았다. 그 해 4월 경오일 발인날에 빈소를 열어 관을 꺼내 충주의 북촌 말흘산에 장사지냈으니 아버지이신 함창군수의 묘가 있는 언덕이니, 9월 병오일이다.

오호라, 문경공은 나에게 실로 증조부가 되시고 관찰사는 나에게 조부가 되시며 광양은 어머니의 아우가 되는 친척이니 보고 듣는 상세함이 참으로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권전은 지금 생원이 되어 나와 함께 성균관의 상사에 들어갔으며, 또 서로 명을 부탁하기를 좋아하여 진실로 사양할 수가 없으니, 어찌 부질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돌아가신 이를 속이겠는가? (…) 유명 정덕 13년(1518) 3월일 세우다.[19]

묘갈 陽記에는 "廣州李氏墓"라고 陽記를 새겼고, 碑題에는 "李氏墓碣銘 并序"라고 새겼다, 陰記의 撰者는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李延慶(1484-1548)이다. 이연경이 광주 이씨의 묘갈 陰記를 짓게 된 것은 두 사람이 형조판서를 지낸 李克堪의 曾孫이라는 혈연 때문이었다. 즉 광주 이씨의 할아버지 李世佑와 이연경의 할아버지 李世佐가 형제간이다. 또 남편 權磌(1490-1521)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교유를 나누었다. 그 인연으로 남편 권전이 동학이자 처가쪽

19) 李延慶, 『金石集帖』(難), "永嘉權磌有賢配, 李氏廣州顯姓. 其先遁村, 曾祖克堪刑曹判書, 策佐翼勳, 階封廣城君. 卒贈左議政, 謚文景. 祖世佑京畿觀察使. 考滋, 弘文館博士, 悟燕山, 出宰咸昌, 咸昌聘司諫安侯彭命之女, 亦廣之衣冠也. 以弘治乙卯九月庚子, 載生于京城里第. 寔其季女生而凝粹秀爽, 五歲, 咸昌歿于官長, 而追毁不妄, 言笑戲嬉事母, 謹處昆弟友, 容儀端莊, 喜怒不形. 甲子之難, 其兄若水若冰, 遠竄嶺海, 當流離之際, 侍側誠孝以安慰, 母心日淨掃. 焚香其祖先神位, 每遇忌日享節, 必躬勞調飪. 嘗學小學, 書又令其第若海, 采經史中可爲閨範者, 讀之不厭, 至倫綱之變, 未嘗不慨然, 若女工眼閱, 輒能皆極精妙云. 正德甲戌歸于磌, 爲禮曹參判贈議政府右參贊諱柱之介婦. 敬夫慈下, 治內寬簡而肅如也. 丙子三月癸巳, 以寢疾夭于京, 年二十二. 其病函比歿, 從容如常. 啓殯以其年四月庚午, 而葬忠州之北村末訖山, 其先考咸昌之墓之原, 乃九月丙午也. 嗚呼, 文景於吾實曾祖, 而觀察於吾祖, 廣陽爲母弟同宗之親, 見聞之詳, 誠莫如吾, 而磌今爲生員 與吾同入國學上舍, 又相好來屬銘, 固不獲讓, 而安敢虛美以欺幽明也. 銘曰, 於戲淵閒, 明正其德, 而天不〇年, 是固賢婦之宅, 我文以宣. 有明正德十三年三月日建."

친척인 이연경에게 아내의 비문을 부탁하였다. 이연경은 묘갈문 서두를 "안동 권전에게 어진 배필이 있으니"라고 시작하였고, 끝에 남편 권전의 청으로 이 묘갈문을 지었음을 밝혔다. 즉 광주 이씨가 사후에 묘갈문을 가지게 된 것은 친정과 남편 양가의 인연이 모두 작용한 결과였지만 남편 권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서 광주 이씨가 남편이나 시댁과의 문제가 있어 친정 묘역으로 돌아와 묻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광주 이씨는 부좌를 하지 못했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와 묻혔을까?

광주 이씨는 1514년 20세에 시집을 가서 2년만인 1516년에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 이씨의 묘갈명에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비문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으로 볼 때 자식을 낳았다면 분명 기록을 하였을 것이니, 광주 이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듯하다.[20] 여기서 여성이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주검이 시댁 묘역에 묻히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와 친정 묘역에 묻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정에서는 祔左之禮를 하지 못하고 주검으로 돌아온 딸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친정에서는 친정 묘역에 딸 혹은 누이를 묻고 비석을 세웠다. 당시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오빠들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집안 공동의 큰 사업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行狀을 짓고 그 행장에 근거하여 묘표, 묘비, 묘갈 등의 碑文을 知人에게 의뢰하거나 가족이 직접 짓는다. 그리고 書藝家를 섭외하여 글씨를 쓴다. 그리고 빗돌을 마련하여 비문을 새기고 비석을 세우는 작업을 차례로 수행한다. 이렇게 비석은 여러 공정을 거쳐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석을 세우는 일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드는 일이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일찍 죽은 여성, 부좌의 예를 행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와 묻힌 젊은 여성의 무덤에도 묘갈을 세웠다. 특히 광주 이씨는

20) 金正國, 『己卯錄補遺』, 「追錄 權碩傳」에 "아들 權喜慶, 손자 權恢이 있다."고 하였는데 광주 이씨의 소생이 아니다. 권전이 살아있을 때에 재취부인을 맞이한 흔적도 없다. 그래서 권전이 죽고 난 뒤 양자로 삼은 듯하다.

세상을 떠나고 햇수로 3년만인 1518년에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을 남편의 청에 따라 이연경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은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함께 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일찍 죽은 아내, 딸, 누이의 무덤에 묘갈을 세운 것이다. 이 점은 자식이 없이 요절한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자하는 남편의 태도, 친정의 태도 나아가 조선시대의 태도를 보여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묘갈명의 음기에서 이연경은 광주 이씨가 어린 시절, 처녀 시절, 결혼 이후에 부모, 형제, 조상에게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고 女工이 정묘하였다고 칭찬하였다. 비석은 광주 이씨의 삶을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광주 이씨의 친정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가? 광주 이씨의 아버지 李滋는 홍문관에서 정자, 저작, 박사를 역임하였다. 연산군의 광포함이 심해지자 이자는 경연에서 매번 풍간을 하였다. 그런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려 함창현감으로 쫓겨갔다. 얼마 뒤인 1498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이자는 죽음을 예감하고 술을 실컷 마셔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광주 이씨의 나이 겨우 5세였다. 그 후 1504년 갑자사화 때는 큰 오빠 李若水(1486-1531)[21]와 둘째 오빠인 李若氷(1489-1547)[22]이 유배를 당하였다. 이렇게 광주 이씨의 친정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아버지와 오빠가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였던 사림파였다. 이후 오빠와 남동생은 기묘사화, 을사사화에도 연루되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당하였다.[23] 물론 광주 이씨는 1516년에 세상을 떠나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때 오빠와 남동생이 목숨을 잃고 가산을 적몰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지는

21) 큰 오빠 李若水는 1519년 기묘사화 때에도 조광조가 유배되자 성균관 유생 150명과 함께 궁궐에 나아가 항소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투옥되었고, 1521년 평해로 유배되고 10년만인 1531년에 다시 예산으로 移配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약수는 1605년 신원되었고 1708년 大興縣 牛井祠에 봉향되었다.

22) 둘째 오빠인 李若氷도 기묘사화로 이약수가 유배되었을 때, 조광조와 이약수의 사면을 주청하다가 파직되었고 1537년에 다시 기용되었다. 그러나 을사사화 때 윤임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가산이 적몰되었다. 1547년의 일이다. 그 후 1570이 되어 복직되고 가산도 돌려받았다.

23) 광주 이씨의 동생인 李若海(1498-1546)도 윤원형이 정권을 장악한 뒤 나주목사로 체직되었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尹任 일파로 지목되어 장흥에 유배되었다가 경원으로 이배되고 사사되었다. 이때 이약해의 가사전토는 모두 소윤 일파에게 분급되었다. 그 뒤 1550, 1568년 신원되어 직첩과 가산을 돌려받았다.

않았으나 그의 친정 집안이 조선 전기 士禍의 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 이씨의 남편 權礦(1490~1521)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다. 권전은 1519년에 현량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 이조좌랑, 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으나 己卯士禍 때 파직되었고, 1521년 辛巳誣獄 때 곤장 170대를 맞고 32세의 나이로 杖殺을 당하였다. 신사무옥은 宋祀連이 고변한 사건이다.[24] 權礦의 아버지 權柱(1457~1505)도 1482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를 賜死할 당시 承政院 注書로 사약을 받들고 간 일로 파직되어 平海로 귀양을 갔다가 그 이듬해에 賜死되었다. 이때 그의 형제자매들은 外方에 付處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 이후에 신원이 되었다.[25]

이렇게 광주 이씨의 친정과 시댁 집안은 연산군 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士林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며 풍비박산을 겪었다. 여기서 조선 전기 사림파 가문에서 결혼을 한 딸이나 누이가 아이도 없이 요절하고 부좌의 예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 주검을 친정 묘역으로 데려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사림파의 결혼한 딸, 누이의 삶을 드러내는 기준이 출산, 양육, 출가외인관념 등으로 재단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 2) 친정 묘역에 묻힌 여성과 시댁의 관계

18세기를 살다간 청풍 김씨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석집첩』(往/續)에는 金在魯와 부인 청송 심씨, 김재로의 장자 金致一과 부인 풍산 홍씨, 김치일의 장자 金鍾純과 부인 청송 심씨의 묘비 탁본이 수록되어 있다. 往/續책은 『금석집첩』 편찬에 관여한 핵심 인물의 아들, 손자의 비석

24) 좌의정 安瑭의 아들 安處謙이 李正叔, 權礦 등과 함께 沈貞, 南袞 등을 제거하려고 모의하였다는 고변이다. 이 고변으로 안당의 3부자뿐만 아니라 권전, 광주이씨의 오빠 李若水 등이 처형되었다. 권전의 형 權礦(1483~1545)은 이황의 장인으로 동생 권전이 장살될 때 예안으로 유배되었다. 뒤에 그들의 죄는 무고로 밝혀져 신원이 회복되었다.

25) 1504년 윤 4월 정축일에 갑자사화가 발발하면서 연산군 생모인 폐비 윤씨의 賜死 때에 승정원 주서로서 사약을 받들고 갔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권주는 당시 주서로 단지 승지의 지휘에 따랐을 뿐이라는 啓가 있어 사형을 면하고 杖刑을 받은 뒤 平海로 귀양갔다가 1505년 6월 결국 사사되었고, 형제자매도 아울러 외방에 付處되었다. 1506년(중종 1) 9월 좌참찬에 추증되면서 신원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다시 장례를 치르도록 허용되었다.

탁본이 수록된 곳이다. 그런데 往/續책 마지막에 김종순의 장녀이자 김재로의 증손녀인 청풍 김씨(1773-1793)의 묘지명 탁본도 있다. 친정 아버지의 묘표 陽記 바로 뒤에 장녀의 묘지명을 수록한 것이다. 증조부 김재로, 조부 김치일, 부 김종순의 탁본은 모두 묘표 탁본인데 청풍 김씨의 탁본은 묘지명 탁본이다. 묘지명의 제목은 「朝鮮孺人淸風金氏墓誌銘 幷序」이다.[26]

『금석집첩』에서의 탁본의 배열뿐만 아니라 청풍 김씨의 묘도 시댁인 기계 유씨가 아니라 친정인 청풍 김씨의 묘역에 있다. 무덤의 위치는 인천 말사리에 있는 조부 김치일, 증조부 김재로의 묘의 위쪽이다. 청풍 김씨는 17세(1789년)에 兪漢俊[27]과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햇수로 5년 만에 21세(1793년)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였다. 김재로 집안에서 자식이 없이 요절한 딸의 주검을 데려와 조부, 증조부 곁에 묻은 것이다. 딸은 부좌의 예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친정아버지 김종순이 이 묘지명을 직접 찬한 뒤 아들 金敬淵(1778-?)에게 누나의 묘지명을 쓰게 하였다. 친정 아버지가 짓고 남동생에게 글씨를 쓰게 한 것으로 보아 빗돌을 구하여 이 글씨를 새기고 묻는 일도 친정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친정 아버지는 묘지명에서 딸이 결혼 전, 결혼 후에 부덕을 기르고 실천을 하였으며 부모, 남편, 시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가를 곡진하게 밝혔다. 친정 아버지가 딸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며 딸의 아름다움을 밝히기 위해 묘지명을 짓고 비석에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딸이 시집간 뒤 자식이 없이 요절하였지만 생전의 딸의 삶은 아름다웠고 그 죽음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친정 아버지가 딸의 묘지명을 짓고 새긴 뜻을 알 수 있다.

---

26) 『金石集帖』은 각 책 표지 혹은 표지 이면에 목차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往/續)책 목차에는 「朝鮮孺人淸風金氏墓誌銘 幷序」가 없다. 이유는 「朝鮮孺人淸風金氏墓誌銘 幷序」을 청풍 김씨가 아니라 김종순의 묘표의 음기라고 오독하였기 때문이다. 청풍 김씨 묘지명 앞에 김종순의 묘표 양기의 탁본이 있는데 그 묘표에는 음기가 없다. 그래서 청풍 김씨의 묘지명을 김종순의 묘표의 음기라고 오독한 본 것이다. 여성의 묘지명이 단독으로 수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오류가 『금석집첩』 표지의 목록 부분 몇몇 곳에 있다. 이런 오류는 『금석집첩』의 목록집인 『금석록』(고려대 만송문고 소장)에도 있다.

27) 淸風金氏의 남편은 兪漢俊이다. 그의 가계는 兪肅基(李觀命의 딸)-兪彦傅(閔百憲의 딸, 金碇의 딸)-兪漢俊-兪慶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는 딸의 묘지명을 찬하며 글 마지막에 사위인 유한준의 계보도 넣었다. “유군은 부가 언전이니 첨정을 지냈고, 숙기의 손자이니 숙기는 첨정을 지냈고 유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兪君父曰彦傳僉正, 肅基孫僉正, 以儒學顯於世).”고 기록하였다. 친정에서는 비록 딸이 부좌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와 묻혔지만 딸과 시댁의 관계가 공고하였음을 보이기 위해 마지막에 사위 가문의 계보를 넣었을 것이다. 딸이 부좌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에 묻힌 것을 두고 사람들이 예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의 광주 이씨나 조선후기의 청풍 김씨나 모두 친정에서는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묻힌 것이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딸이 친정 묘역에 묻힌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밝혀야 할 정도로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친정에서는 왜 딸의 주검을 친정 묘역에 묻었을까? 친정에서는 사위가 재취하고 자식을 낳는 길을 넓혀주려고 딸의 주검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사위와 사돈 집안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다. 또 친정에서는 딸이 자식도 없이 시댁 묘역에 있을 경우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신세가 될 것을 염려했을 가능성도 크다. 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딸을 위해 비석을 세웠고, 묘지명을 묻었다. 만약 딸이 오래 살았다면 아름다운 일과 行을 실천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요절을 하여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하고 자식이 없이 죽은 딸을 가여워하는 마음을 비석을 세우고 묘지명을 묻는 것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부좌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온 딸이 시댁에서 내쳐진 것이 아님을 알려 딸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비문과 묘지명에 시댁과의 관계를 새겼던 듯하다. 친정아버지가 묘지명을 찬하고 오빠가 쓰고 돌에 새겨 무덤에 묻는 등 친정 식구들이 딸 혹은 누이를 위한 비석과 묘지명을 새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경우, 요절하지 않았어도 친정 묘역에 묻힌 여성이 있다. 淑人 申氏는 40세에 세상을 떠나 친정인 신씨 묘역에 묻혔다. 양주 群場里에

고령 신씨의 묘역이 있고 율북리에 안동 김씨의 묘역이 있다. 친정 집안사람들은 숙인이 시댁인 김씨의 선영에 묻히지 않고 신씨의 선영에 묻히는 것이 正禮가 아니지만 숙인의 유언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밝혔다.[28] 그렇다면 숙인은 왜 정례가 아닌 일을 유언으로 남겼을까?

비문에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으나 기르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녀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기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이 재취부인을 얻어 자식을 낳고 대를 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정 묘역으로 돌아가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성 스스로 남편에게 아들이 생기기를, 그 아들이 가문을 계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고령 신씨의 남편은 金光煜(1616-1664)으로 한양에 거주하였다. 그는 金尙宓, 金光煜, 金昌業으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 집안 사람이다. 김상복은 金尙容과 金尙憲의 막내 동생이다. 초취부인인 고령 신씨가 자식을 낳았으나 한 명도 기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김광식은 재취부인을 맞이하였다. 工曹佐郞을 지낸 趙鈇의 따님인 咸安 趙氏이다. 그런데 재취부인도 아들은 없이 딸만 하나 낳았다. 측실에게서 서자 하나, 서녀 하나를 얻었으나 金昌業(1658-1721)을 양자로 들였다. 김창업은 생부가 金光燦이다.

신씨를 친정 묘역에 묻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주관한 사람은 친정 아버지였다. 고령 신씨의 아버지는 申澥(1596-1663)이다. 그는 딸의 뜻을 헤아리고 딸의 주검을 친정 묘역에 묻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 딸의 무덤을 친정 묘역에 쓰게 된 일을 음기에 새겼다. 친정 아버지는 딸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친정 선영에 묻힌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그 방편으로 딸의 시댁, 양자의 일을 비석에 새겼다. 부좌가 예이고 시댁 묘역에 묻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던 사회에서 신씨가 시댁에서 쫓겨났거나 시댁과 갈등을 일으킨 여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29] 여성이 시댁 묘역에 묻히지 않고 친정 묘역에 묻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기에 친정에서는 딸의 명예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기록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28) 金昌協, 『農巖集』, 「淑人申氏墓表」.
29) 金昌協, 『農巖集』, 「淑人申氏墓表」.

진행하였다. 딸이 친정 묘역에 묻히는 일은 이렇게 해명하거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석에 새겨 밝혀야 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조선시대의 출가외인의 관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친정에서 자식이 없이 일찍 죽은 딸의 주검을 데려와 묘역에 묻고 묘지명을 새기거나 비석을 세운 것은 딸을 출가외인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경직되게 실천한 문화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딸 혹은 누이가 시댁에서 친정 묘역에 묻힌 이유를 보여주려는 태도도 딸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의도이지 딸이 시댁 집안사람임을, 출가외인임을 증명하려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4. 여성묘주의 비석, 누구의 삶도 기억되어야 한다

비석의 종류는 墓表·墓碑·墓碣로 구분되는데 그 중 묘표는 신분·성별·연령 등에 제한 없이 누구든 묘주로 하여 세울 수 있다.[30] 『금석집첩』 수록 여성묘주에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결혼하지 않고 일찍 죽은 여성묘주, 성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어린 여성묘주의 묘표이다. 이 묘표는 조선시대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죽은 여성의 비석을 세웠음을 말해준다. 비석을 세우는 일이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묘주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는 사실은 조선시대가 결혼 여부, 출산 여부를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은 여성을 미완성인 존재, 결격 사유가 있는 존재로 대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인식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은 여성묘주의 비석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비석을 세우는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妻子淸風金氏之墓」에서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죽은 어린 여성의 비석을 세웠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묘주 청풍 김씨(1645-1661)는

30) 金長生, 『沙溪全書』 제29권, 「家禮輯覽〇喪禮」, 한국고전번역원, "墓碣은 근세에 5품 이하가 쓰는데, 글은 비문과 같다. 墓表는 관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두 쓸 수가 있으며, 묘의 왼쪽에 表를 세운다."

17세의 나이로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조부는 正郎을 지낸 金克亨, 아버지는 관찰사를 지낸 金澄(1623-1676)이다. 형제로는 金構(1649-1704), 金榛(1653-1719), 金棆(1655-?) 등이 있으니 청풍 김씨는 바로 그들의 누나이다. 청풍 김씨의 묘표는 동생 김유가 지었다. 다음은 김유가 지은 청풍 김씨의 묘표이다.

> 처자 김씨(1645-1661)는 청풍인이다. 어려서 부드럽고 아리따웠고 은혜롭고 순리를 따라 부모가 매우 어여뻐하였다. 나이 17세에 아버지의 강진 부임지에 따라갔다가 병들어 죽으니 곧 신축년(1661) 4월 26일이다. 廣州의 선영 서남쪽 몇 리쯤인 손향지원에 장례를 지냈다. 아버지는 휘 澄으로 관찰사를 지내고 영의정을 추증받았으며 어머니는 정경부인 이씨이다. 아우 構(1649-1704)가 있으니 우리 조정에서 재상이 되어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나 榛는 지금 이조참판이고, 棆는 지금 인천부사이다. 오호라. 우리 누나가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없었다고 하늘에 따질 수 있겠는가? 그 묘에 슬픔을 적어 후인들에게 고하노니 훼손하지 말라.
>
> 숭정 기원후 거듭된 무술년(1718년)에 아우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의금부 춘추관사 세자우부빈객 榛가 짓다.
>
> 이 해에 신유년(1681) 10월을 쫓아서 세웠다.[31]

누나가 1661년에 세상을 떠날 때 김유의 나이는 겨우 9세였으니, 김유에게 누나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김유가 누나에 대해 부드럽고 아리땁고 은혜롭고 순리를 따라 부모님이 무척 사랑하였다고 한 말은 아마 전해들은 말일 것이다. 김유는 누나의 음기를 쓰며 감정을 과장하거나 수식하지 않았다. 누나의 죽음이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갔다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간략하게 밝혔다. 김유는 누나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늘에 따져 물을 수는 없다고 하며, 기억이 많지 않은 누나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과장하지 않았고 하늘의 뜻이었다고 받아들였다. 아마 그가 자식이었다면 이와 다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

---

31) 金榛, 『金石集帖』(秋/續), 「妻子淸風金氏之墓」, "處子金氏淸風人, 幼卽柔婉惠順, 父母絶愛之. 年十七, 隨親之康津治所, 疾卒, 寔辛丑四月二十六日. 歸葬廣州先塋西南數里巽向之原. 考諱澄觀察使贈領議政, 妣貞敬夫人李氏. 有弟構相我聖朝官至右議政. 榛今吏曹參判, 棆今仁川府使. 嗚呼, 以吾姊而不克壽而祚天可問乎. 志哀其墓誌, 後人勿毁."

그런데도 김유는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58년이 지나 누나의 묘표를 짓고 비석을 세웠다. 더구나 김유는 1719년에 67세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해에 이 일을 실행하였다. 죽기 전에 누나의 묘표를 짓고 비석을 세우는 과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해인 1681년에도 누나의 묘표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한 차례 있었던 듯하다. 김유가 비석 음기에 1681년의 일을 좇아서 1718년에 비석을 세웠다고 그간의 경과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완수하지 못한 일을 37년이 지나 완수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누나의 묘에 비석을 세우는 일은 57년이나 걸려 겨우 완성되었는데 이는 누나의 묘표를 세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유는 왜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58년이나 지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해에, 누나의 묘표를 짓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을까?

김유는 누나의 묘표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무덤을 훼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다. 김유가 누나의 묘표를 짓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누나에게는 자손이 없으니 무덤을 제대로 돌볼 이도 없다. 그래서 누나의 묘는 훼손될 위험이 높다. 김유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가 커서 후인들에게 누나의 묘를 당부하기 위해 묘표를 세웠고 이곳이 누구의 무덤인가를 표시하여 후인들이 이 무덤을 훼손하지 말고 돌보도록 당부하였다.

김유는 누나의 일생에 대해 장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 여성이라고 하였으나 결혼이나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나의 무덤을 지키고 훼손하지 않는 것과 무관한 일이다.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죽은 이는 누구나 그의 사후의 공간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죽음의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후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우선, 후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혼동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람들이 비석을 보고 누구의 무덤인가를 알고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무덤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던가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무덤을 찾아가고,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고, 묘주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모두 묘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묘주의 생전의 삶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석을 새울 때에 쉽게 뽑아버리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빗돌의 크기도 고려하였다.[32] 김치인은 형 김치일의 비석을 세우는 일을 완수하고 난 뒤 "아 이것이 공을 불후하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33] 즉 묘주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비석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런 태도는 여성묘주에게도 적용되었다. 여성묘주의 비석을 단독으로 세우거나 남편의 비석에 부좌, 부우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여성의 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고 여성묘주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한 것이다. 여성의 결혼 여부, 자식 유무와 상관없이 딸 혹은 누이의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딸 혹은 누이의 삶과 죽음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묘주의 비석을 세울 때 여성의 결혼 여부나 자식 유무를 전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었음은 주목할 일이다. 조선시대가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흔적, 그 존재가 행했던 일과 行은 누구의 것이든 기억되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후손이 조상을 선양하고 가문을 현창하고자 묘표를 세운 경우도 있었다. 南九萬(1620-1711)이 짓고 쓴 「有明朝鮮領議政宜寧府院君 贈謚忠敬龜亭南公諱在之元配卞韓國大夫人坡平尹氏之墓」[34]는 여성묘주의 묘에 비석을 세우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석집첩』에는 이 묘표 양기의 탁본은 없고 음기의

32) 李裕元, 『林下筆記』 제16권, 「文獻指掌編, 碑碣標識」, 한국고전번역원, "金柱臣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誌石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후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요, 아직 오랜 세월이 흐르기도 전에 벌써 香火가 단절되고 封域이 점차 허물어져 가는 일이 있을 경우, 만약 여기에 명백하게 새긴 것이 없다면, 설령 후손들이 찾아와서 이를 찾고자 하더라도 옹기종기 거친 무덤들이 널린 속에서 이곳저곳 손가락질만 하다가 끝내 어느 것이 자기 조상의 무덤인지를 알지 못하여 결국 이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니, 이 어찌 후손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돌을 쇠로 쳐서 다듬어서 빗돌을 만드는 것이 陶片을 구워 誌石을 만드는 일에 비하여 그 공력이 몇 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빗돌의 크기는 그 가정 형편의 여하에 따라 여러 해를 두고 준비해야 하며, 또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더러 그 粢盛을 줄인다든가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를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집안의 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빗돌의 길이가 5, 6척 정도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세대가 멀어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쉽게 뽑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완전한 대비가 될 것이다."

33) 金致仁, 『金石集帖』(往/續), 「掌樂院正金公致一之墓, 淑人豐山洪氏祔左」

34) 南九萬, 『金石集帖』(表), 「有明朝鮮領議政宜寧府院君, 贈謚忠敬龜亭南公諱在之元配卞韓國大夫人坡平尹氏之墓」.

탁본만 있다. 남구만은 南在(1351-1419)의 神道碑銘도 지었는데,[35] 그때 남재의 神道碑를 세우면서 초취부인인 尹氏의 묘비도 세운 것이 아닌가 한다. 비석은 1695년 7월에 비로소 글자를 새기고 묘 좌측에 세웠다(乙亥七月, 始礱石鐫字竪之墓左).

남재는 조선시대 내내 開國元勳으로 인정을 받았다. 적장손인 南泰徵이 1728년에 역적으로 처형된 뒤에도 조정에서는 남재의 제사를 받들 후손을 정해주고 전답을 적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우대를 하였다. 남구만은 10대조 할머니이자 남재의 초취부인인 윤씨(?-?)의 묘표를 지으며 의령 남씨의 계보를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윤씨의 일생은 그녀가 두 아들을 길렀다는 것 외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남구만이 250여 년 전에 돌아가신 10대조 할머니의 일생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그가 할머니의 일생을 기록하는 것보다 가문의 계보를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윤씨의 무덤에 묘표를 세운 이유가 윤씨의 일생을 위해서라기보다 가문을 현창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石集帖』에는 南在의 비석 탁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원배 윤씨의 비석을 250여 년이 지나 새로 세우는 작업은 바로 개국공신의 신도비를 세우며 부인의 묘비도 세웠고 이를 통해 가문을 현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여성의 비석은 후손이 조상을 선양하는 작업으로 세워진 경우도 있었다.

## 5. 여성 묘주, 碑文의 형식을 새롭게 하다

### 1) 부부 공동의 묘갈을 기획하다

李滋와 부인 安氏의 집안에서는 여성묘주의 비석을 세우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듯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딸인 광주 이씨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자식이 없이 요절하자 그 주검을 친정 묘역으로 데려와 묻고 비갈을 세웠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이자와 부인 안씨의 묘갈도 세웠다. 그런데 이 부부의

35) 南九萬, 『藥泉集』 第24, 「十代祖考純忠奮義同德開國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春秋館書雲觀事, 修文殿大提學世子師, 宜寧府院君贈諡忠景公府君神道碑銘」(『한국문집총간』132, 한국고전번역원).

묘갈은 처음부터 부부 공동의 묘갈을 기획하고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의 묘표, 묘비, 묘갈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2〉〈承訓郎咸昌縣監李公宜人安氏之墓〉,『金石集帖』(雜)

이자(1466-1499)가 34세에 세상을 떠나고 24년 뒤에 부인 안씨(1472-1522)가 51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약수, 이약빙, 이약해 등 자식들이 어머니를 충주 말흘산 아버지의 묘역에 壙을 달리하여 祔左하였다. 그리고 朴祥에게 묘갈명을 받아 1524년에 비석에 새기고 건립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햇수로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식들이 모두 어려서 묘갈명을 받아 비석에 새기고 건립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묘갈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묘표, 묘비, 묘갈 등 비석의 형식과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비석은 남편을 중심에 두고 남편의 가계, 언행, 관력 등을 碑題, 陽記, 陰記에 새겼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는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모습을 "간략하게" 새기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비제에서는 남편의 관력, 본관, 이름 등을 썼고 부인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양기 즉 비석의 전면에는 남편의 묘임을 밝히는 글을 썼고 부인의 경우 祔左,

祔右 등을 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從葬"과 "의례를 따랐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음기 즉 비석의 뒷면에는 남편의 가계, 언행, 관력, 혼인, 자녀 등을 썼고 부인의 경우 남편의 혼인을 기록하기 위해 부인의 가계나 言行을 짧게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자와 부인 안씨의 묘갈의 경우, 자식들이 묘갈을 세우고자 기획하는 단계부터 撰者 朴祥에게 아버지의 음기에 어머니의 음기도 附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其孤正郎若水進士若海, 追惟前喪俱在嬰孩, 喪事草創乃稽禮文, 卽以銘請余, 附載先妣之事, 同鐫小碣.) 그래서 박상은 음기에서 이자와 부인 안씨의 이야기를 비슷한 분량과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애초에 부부 공동의 묘갈을 기획하였던 것이다.

박상에게 묘갈을 받고 난 뒤 자식들은 비석에 碑題를 새길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새겼다. 〈그림 2〉에서 보듯이 "有明朝鮮國故咸昌縣監李公宜人安氏墓碣銘 并序"라고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나란히 새겼다. 이와 같이 비제에 부인의 이름을 나란히 새긴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비석 전면에 양기를 새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承訓郎行咸昌縣監李公宜人廣州安氏之墓"라고 하여 이자와 부인 안씨의 이름을 나란히 새기고 두 사람이 공동 묘주임을 밝혔다. 보통의 경우, 남편을 "承訓郎行咸昌縣監李公之墓" 등으로 먼저 새기고 行을 바꾸어 아내를 "宜人廣州安氏祔左" 등을 새겨 부좌나 부우 등의 정보를 남겼다. 그런데 이자 부부의 경우 남편을 먼저 쓰긴 하였으나 행을 바꾸지도 않았고 부부의 이름을 이어서 썼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약해 등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갈을 이렇게 기획한 데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4년간 홀로 자식을 양육하고 집안을 경영한 노고를 위로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박상도 음기 전반부에 어머니의 일을 附戴하여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양육하고 집안을 경영하였다해도 대부분의 경우아버지의 비석을 세우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비문을 새긴 것과 달리 이약해 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함께 새긴 비석을 세움으로써 어머니의 공로, 어머니의 일생을 뚜렷하게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였다.

그래서 비제, 양기, 음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과 행이 나란히 새겨진 비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박상(1474-1530)의 문집에는 이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박상의 문집에도 이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문집의 묘갈명과 비석에 새긴 묘갈명에는 차이가 있다. 박상의 문집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묘표, 묘비, 묘갈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이다. 비석에 새긴 글과 문집에 수록된 글이 차이가 나는 일은 흔하지만 이자 부부의 묘갈은 그 차이가 유독 심하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박상의 문집은 비제도 남편 이자를 내세워 「博士李公墓碣銘 幷序」라고 하였다.[36] 비석에서 "有明朝鮮國故咸昌縣監李公宜人安氏墓碣銘 并序"라고 남편과 아내를 나란히 내세운 것과 선명한 차이가 있다. 부인 안씨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다. 또 문집에는 자식들이 묘갈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어머니의 일을 附載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박상이 애초에 이자 집안에 준 묘갈명과 자신의 문집에 넣을 묘갈명의 제목을 달리한 것인지, 아니면 박상이 죽고 난 뒤 조선전기에 初刊本 刪定을 맡았던 동생 朴祐가 제목과 내용을 그렇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조선후기에 重刊本을 기획하였던 金壽恒이 그렇게 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全稿本과 初刊本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37] 김수항이 초간본과 남아 있던 全稿本을 합하여 중간본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때 그가 초간본 제목과 음기를 그대로 썼는지, 바꾸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음기 후반부에 이자와 부인 안씨를 소개하는 부분은 문집과 비석의 내용이 같다.

이약수, 이약빙, 이약해 형제들이 부모의 묘갈을 세울 때 보여준 태도는 고려시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연상케 한다.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부부의 모습을 초상화로 남겼다. 이 부부 초상화는 고려시대 여성과 남성의 위상을 보여준다.[38] 조선

---

36) 朴祥, 『訥齋集』, 「博士李公墓碣銘」(한국문집총간18, 한국고전번역원).
37) 박상의 문집에 대해서는 朴祥, 『訥齋集』, 「해제」(한국문집총간18,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38)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20-26면 참조.

전기에도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박연 부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박연부부도 공민왕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초상화를 남겼다. 고려시대의 유풍이 조선전기에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부초상화는 조선전기까지는 보이는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후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인데 고려시대의 유풍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점점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화뿐만 아니라 비석에서도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로 이어지는 부부초상화의 그 모습이 이자 부부의 묘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박연부부 초상화의 畫題에는 박연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자 부부의 묘갈에는 부부의 일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이자 부부의 묘갈은 자식들이 어머니의 노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형식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조선중기부터 조선후기의 부부의 묘표, 묘비, 묘갈은 대부분 가족의 실제 상황이 어떠하든, 어머니의 노고가 어떠하든, 여성의 묘표, 묘비, 묘갈을 따로 찬하고 새기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가계, 연행, 관력을 중심으로 음기를 찬하고 새기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묘갈은 여성의 지위가 점점 더 왜소화되는 단계 이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약해 등이 각종 사화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림이었음을 생각하여 보면 조선전기의 사림의 여성 인식이 아직 경화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 2) 공동 찬자의 비석을 기획하다

「贈貞夫人海州吳氏之墓」는 黃杲(1604-1656)가 찬한 해주 오씨(1588-1622)의 묘갈명이다. 묘주 해주 오씨는 沈演(1587~1646)의 前配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沈瑞肩(1622-?)이 있는데, 심서견이 손위 처남인 황호에게 어머니의 묘갈명을 부탁하여 받은 것이다. 글씨는 李命殷(1627-1679년 이후)이 썼고, 1677년 10월에 건립되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咸鏡道觀察使沈公

前配 贈貞夫人吳氏墓碣銘 并序”이다.

심연은 오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취부인을 맞이하였고, 오씨가 세상을 떠나고 25년 뒤 1646년에 세상을 떠났다. 심서견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의 묘를 옮겨 아버지의 묘에 합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종친들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묘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 합사가 어렵다고 만류하는 의견을 듣고 포기하였다. 그 대신 심서견은 어머니의 묘에 묘갈을 세우고자 하였다. 심서견은 “태어난 지 4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기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의 묘를 옮겨 아버지와 합사하려고 종친들과 의논하였는데, 사람들이 어머니의 무덤이 오래되어 무덤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만류하여 결국 합사도 못하였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이 더욱 애통하여 묘표를 세워 영원한 그리움을 붙이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심서견이 어머니의 묘갈을 세우고자 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 부인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 하나가 있으니 瑞肩이다. 진사에 합격하여 지금 벼슬이 사재감 직장인데, 나를 방문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어서 피를 토하며 말하였다. “나를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태어난 지 4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이미 위의와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자라서는 어리석어서 또 언행을 갖추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숙부와 외숙모가 이미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 누구를 따라 물어보겠습니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내가 어찌 사람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군의 장례에 장차 옮겨서 합하려고 하여 여러 집안사람들과 도모하니 모두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땅 속 일을 아직 알지 못하니 내가 편하자고 혼백을 움직일 수는 없어 불초소생이 통곡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묘표를 세워 영원한 그리움을 붙이고자 하니 마땅히 새기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보니 징험할 곳이 없고 오직 선군이 우리 어머니를 제사지내신 문장이 상자에 갈무리된 것이 있으니 청컨대 이것으로 행장을 삼아 주십시오.”39)

39) 黃杲, 『金石集帖』(唐), “夫人有丈夫子一, 曰瑞肩. 中進士, 今官司宰監直長, 謁余泣下, 繼之以血曰, 不肖不天, 生四日而慈母見背, 旣不得彷彿儀容. 稍長騃昧, 又不能備聞言行. 外叔父母凋零已盡, 孰從而問之? 天乎天乎, 吾何以稱人子哉. 吾先君之葬也, 將遷而合焉, 謀諸宗人, 咸曰歲深矣. 地中事未可知, 不可以動我寧魄, 不肖痛哭而止. 今欲樹阡表之石, 以寓永慕, 宜有刻辭, 顧泯泯無徵, 惟有先君之祭吾母文藏之巾衍, 請以是爲狀.”

황호는 매제 심서견의 출생, 부모님의 묘를 합사하려 했던 과정, 묘갈을 세우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합사하지 못하여 느낀 안타까움을 비석을 세우는 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즉 자신의 묘갈명 내에 심서견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쓴 제문을 그대로 넣어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처음 황호가 자신의 묘갈명에 심연의 제문을 넣은 것은 여성묘주의 비문도 징험할 만한 기록에 근거하여 짓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단계에서 시작되었다.(故遂因其狀檃栝, 俾刻于石)[40] 묘표, 묘비, 묘갈 등을 세우려면 새기는 말이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심서견은 손위처남인 황호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다. 비문을 지을 때에는 "징험할 만한 글에 근거하여 짓는 것"이 중요하다.[41] 그런데 여성묘주는 자신의 일생을 징험해 줄 근거 즉 行狀 같은 글을 갖기가 쉽지 않다. 심서견은 어머니를 징험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게 되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제문을 황호에게 주며 징험할만한 글로 삼아 묘갈명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황호가 심서견이 건넨 제문을 읽어보니, 남편 심연의 아내 오씨를 향한 절절한 심정이 제문에 잘 드러났다. 이에 황호는 이 제문이 징험할만한 글로 삼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묘갈명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묘주 오씨의 묘갈명은 사돈 황호가 찬하였지만 그 안에 남편 심연의 제문도 들어있는 일종의 공동 찬자의 형식이 되었다. 징험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여성묘주의 특성이 여성묘주의 비문을 공동 찬자, 공동 창작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다음은 남편의 제문이다.

> 내가 받아서 읽고 그 행적(행실)을 얻으니 그 말이 대략 이러하였다. "그대의 품성과 행실은, 천부적으로 맑고 고르다네. 규방의 예를 배웠으니, 부모가 정성스럽게

40) 權尙夏, 『寒水齋集』, 「孺人宋氏墓表」.

41) 『金石集帖』의 여성묘주의 탁본에도 이 특징을 강조하는 곳이 빈번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 金昌翕, 『金石集帖』(女), 「贈貞夫人辛氏之墓」에서 박필주는 자신이 서술한 어머니의 행장 한통(先夫人行實一通)을 김창흡에게 주며 묘표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李宜顯, 『金石集帖』(女), 「有明朝鮮贈貞夫人潘南朴氏之墓」에서도 초취부인의 아들인 李秀輔가 비석을 세우고자 행장을 이의현에게 주었다.

가르치셨네.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연년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의지할 곳이 없고, 가정이라는 것도 없었지. 그대를 얻어 배필을 삼아, 실로 봄날에 혼인을 하였지. 그대 나이 얼마던가? 나보다 한 살 어렸지. 비녀 꽂고 시집을 오니, 말과 행동이 아름다웠지. 그대가 집안에 들어오고부터, 종족이 경사를 맞았지. 우리 집은 본래 가난하여, 대대로 사업이 한미하였지. 열 식구가 배를 곯아 누렇게 떠서, 지게미도 항상 어려웠지, 그대가 와서 가난한 살림을 거느리며, 아침저녁으로 야위도록 부지런히 애썼지. 그대 정성을 다하여, 우리 조상의 제사를 받들었지. 이렇게 은근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 어찌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어찌 여름에 갈옷이라도 입었으랴. 몸에 메추라기를 걸치고, 채소로 굶주림을 채웠지. 무명실을 빨고 바느질품을 팔았으니,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었으랴. 사람이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여도, 그대는 마치 영화로운 듯하였지, 눈썹에는 원망하며 찡그리는 빛이 없었고, 입에는 한탄하는 소리가 끊어졌지. 그대는 매번 나에게 말하기를, '가난은 선비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나의 근심은 항상됨이 없음에 있어요. 그대는 옛날에 나를 경계하였는데, 지금 세상은 매우 힘들어요. 과거급제의 명성이 수치가 될 만하니, 부귀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찌 전원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농사 지은 곡식은 매우 달답니다.' 아름다운 말과 좋은 말, 나를 향해 수다스럽게 하였지. 작년 가을에, 그대를 거두어 귀향하였지. 동복이 환영하고, 벼와 곡식이 상자에 가득하였지. 그대가 고향 집에서 즐거워하며. 농사일을 급선무로 하였지. 밭가는 소가 외양간에 있고. 호미와 농기구 또한 갖추어졌지. 곡식을 저장하여 종자로 삼으니, 말과 석이 되었지. 봄이 오기를 기다려, 마음을 단단히 차려 봄철 농사를 지었지. 누가 인생을 헤아리랴, 아침이슬보다 먼저 사라질 줄이야. 옛날 그대의 경영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네. 따뜻한 그 덕, 환한 그 자질, 15년간, 마음 다잡기를 한결같이 하였지. 정이 깊게 해로하여, 함께 묻히고자 하는 마음 절절하였지. 누가 생각하였으랴, 오늘 아침 그대가 죽고 내가 살 줄을.[42]

남성묘주의 경우 벼슬을 하거나 문벌이 있었다면 대개 행장, 묘지명 등의

42) 沈演, 祭文, 『金石集帖』(帊), "余受而讀之, 而撫其行治, 其詞略曰, 惟君性行, 天賦淑均. 學禮閨房, 父母諄諄. 顧余弱冠, 連歲泣血. 零丁孤苦, 未有家室. 得君爲配, 實天春姻. 君年幾何, 少余一春. 旣笄而歸, 德音徽令. 自君入門, 宗族相慶. 吾家素貧, 世業單寒. 十口顒顒, 糠粃常艱. 君來御窮, 夙夜勤瘁. 盡君之誠, 奉我先祀. 殷斯勤斯, 躬不自恤. 何冬服暖, 何夏衣葛. 懸鶉在躬, 蔬菜充飢. 澼纊傭針, 何所不爲. 人皆謂苦, 君則如榮. 眉無怨顰, 口絶嗟聲. 君每謂我, 貧者士常. 我心之憂, 不在無裳. 君昔戒我, 今世孔艱. 科名可羞, 富貴非關. 盍歸乎田, 稼穡孔甘. 嘉言善說, 向余諄諄. 曁乎前秋, 卷君歸鄕. 僮僕歡迎, 禾穀盈箱. 君樂鄕居, 急先農務. 耕牛在廐, 鎡器亦具. 儲穀爲種, 于斗于石. 待此春歸, 銳意東作. 誰料人生, 溘先朝露. 昔君經營, 增我悲苦. 溫溫其德, 皎皎其質. 十五年間, 秉心如一. 情深偕老, 志切同塋. 誰謂今朝, 君死我生."

글이 남아 있어 징험할 만한 글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여성묘주의 경우 징험할 만한 글이 남아 있지 않아 묘도문자를 지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여성묘주 묘도문자의 다양한 형식을 생산하였다. 황호의 묘갈명의 경우 찬자의 묘갈명 내에 다른 찬자의 글이 액자식으로 들어가 있어 마치 공동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데 그 공동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모의 묘를 합장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묘비를 세우는 의의가 고조되었다. 황호는 이에 대한 감동을 숨김없이 표출하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유없이 흘러 말하였다. '아, 갖추어졌구나, 이와 같이. 이곳에서 부부를 볼 수가 있다.'"[43] 황호도 자신이 비문에서 부부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매제 심서견이 그토록 부모의 묘를 합장하고 싶어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는데 비석에서라도 부모가 함께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으니 매제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나름의 뿌듯함을 감추지 않고 표출하였던 것이다.



〈그림 3〉〈贈貞夫人海州吳氏之墓〉,『金石集帖』(吊)

그런데 이 묘갈명에는 또 다른 찬자가 있다. 〈그림 3〉을 보면, 즉 아들 심서견이 어머니의 음기 뒤에 追記를 붙였다. 심서견은 황호의 음기를 이어 스스로 追記를 짓고 새겼다. 그는 추기에서 황호가 간략하게 처리한 부분 즉,

43) 黃扈,『金石集帖』(吊), "余不覺涕之無從曰, 噫, 其備矣戚矣."

자신과 자신의 아들딸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황호는 심서견과 그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그래서 심서견은 추기에 그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추기가 완성되자 비석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손자손녀가 한 자리에 모인 정황이 되었다. 심서견은 태어난 지 4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냈다. 그런데 비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성묘주 비석의 추기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에서 탄생하였다. 평생 한 자리에 함께 있어본 적이 없는 아들의 결핍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후손의 보답을 받으며 대대손손 영원할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래서 황호도 銘에서 "아들과 손자가 있어, 보답을 받으며 대대손손 오래하리라"고 하였다.[44] 묘비, 묘갈, 묘표는 후손들이 묘주를 기억하고 묘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표출된 행위이지만 묘주를 중심으로 묘주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공동체를 가상의 공간에서 실현하는 위로의 장, 결핍을 위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묘표, 묘비, 묘갈에서 기록하는 가계는 대개 증조부, 조부, 부로 이어지는 형식을 고수한다. 그런데 추기에서 기록한 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나, 나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음기의 추기는 어머니의 비석을 세우는 아들의 심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낸다. 가문의 계보를 말할 때는 돌아가신 조상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나의 아들딸로 구성된 계보는 어머니에게 나의 성장과 나의 자식들을 알리는 장이 되었던 것이다.

비석은 여러 사람의 의도가 개입하여 완성되는 양식이다. 묘주가 있고, 묘주를 위한 묘도문자를 요청하는 사람, 이 요청을 수락하여 글을 짓는 사람, 글씨를 쓰는 사람, 돌을 찾고 세우는 사람, 글씨를 새기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비석에는 주관하는

44) 沈瑞肩, 『金石集帖』(帛), "瑞肩又生二男曰德元弘元, 幼女長適進士閔周道, 次適嚴纘, 己亥七月日, 子瑞肩敬識孫得元謹書."

이의 의도가 크게 개입이 된다. 비석의 형식의 변화를 특히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묘주의 묘비, 묘갈, 묘표 등에는 양식이 혼성되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이유이다.

## 6. 마무리

본 연구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이하 교토대학) 소장『金石集帖』에 수록된 女性墓主 拓本을 분석하여 여성묘주 碑石과 碑文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남편의 비석에 새겨진 “부좌”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비석은 장례문화에 수반되는 행위인데 여성의 장례에서는 “祔左의 禮”를 중시하였다. “부좌”는 남편의 무덤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묻혔다는 뜻으로 여성이 죽음 이후에도 남편을 따른다는 從葬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부좌의 예”를 행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었다. 남편의 무덤의 위치가 부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풍수적인 이유 등으로 부좌를 하지 못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 이외에는 자식이 없이 일찍 죽은 여성들이 부좌를 하지 못하고 친정 묘역으로 돌아갔다. 친정에서는 자식이 없이 요절한 딸의 일생을 출산, 양육, 출가외인 등의 관념으로 재단하지 않고 비석을 세워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였다. 조선전기 사림 집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동시에 남편이나 시댁 관련 정보를 비문에 새겨 딸 혹은 누이가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부좌를 하지 못하였다는 오해를 경계하였다.

다음, 조선시대는 어떤 여성의 비석을 세웠던가를 밝혔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비용과 공력이 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석의 여성묘주가 반드시 높은 관직을 역임한 관료의 아내나 어머니, 자식을 낳아 잘 기른 훌륭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이러한 여성묘주의 비석은 조선시대가 누구의 삶도 기억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여성묘주 碑文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묘도문자의 형식은 묘주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묘주의 비문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이 생성되었다. 부부 공동의 비석을 기획하였고, 공동 찬자의 비석이 세워졌으며, 비석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와 나 그리고 나의 자식이 함께 존재하는 정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의 삶과 죽음, 조선시대가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밝히고 조선시대의 여성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단 비석을 통해 여성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층 여성에 대한 이해로 제한될 한계가 있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비문을 작성하여 두고 비석을 40년이 지난 뒤에 세우기도 하고 250년이 지나 세우기도 하였고, 끝내 세우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 등 공력이 드는 일이기에 조선시대에 여성의 비석을 세운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 탁본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 비석을 탁본할 때 여성묘주 비석을 탁본하는 일, 그 탁본을 탁본집에 수록하는 일은 탁본집을 편찬하는 주체의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금석집첩』에 수록된 여성묘주 탁본을 연구하는 일은 김재로와 그의 주변 인물의 『금석집첩』 편찬 의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김재로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여성묘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 ▮ 참고문헌

權尙夏, 『寒水齋集』, 『韓國文集叢刊』150, 한국고전번역원.
『金石集帖』, 일본 교토대학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錄』,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金石錄』,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
『金石錄』, 규장각 소장.
『金石錄』, 일본 와세다대 도서관 소장.
『金石淸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己卯錄補遺』, 한국고전번역원.
金柱臣, 『壽谷集』, 『韓國文集叢刊』176, 한국고전번역원.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161-162, 한국고전번역원.
南九萬, 『藥泉集』, 『韓國文集叢刊』132, 한국고전번역원.
『大東金石書』, 일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
朴祥, 『訥齋集』, 韓國文集叢刊』18, 한국고전번역원.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韓國文集叢刊』142, 한국고전번역원.
李瀷, 『星湖先生全集』, 『韓國文集叢刊』198, 한국고전번역원.
鄭瀳, 『東谿集』, 『韓國文集叢刊』75, 한국고전번역원.
李裕元, 『林下筆記』, 한국고전번역원.
『日省錄』, 한국고전번역원
『海東金石苑』,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6.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亞細亞文化社, 1978, 1-734면.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20-26면
강혜선, 「조선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7-36면.
_____,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57-82면.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학회, 2011, 237-302면.
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 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 1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s://www.history.go.kr)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1-173면.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1책, 태학사, 2012, 657-676면.
_____, 「조선시대 여성 묘비에 관한 일 고찰」, 『한문학논집』 49, 근역한문학회, 2018, 273-350면.
_____, 「교토대학 소장 金石集帖에 대하여」, 『民族文化硏究』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_____,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107-135면.
최기숙,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구술적" 포용성-"한문/언문"과 "말/글"의 중첩과 포용의 맥락」,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259-289면.

최효식,「東都의 명기 紅桃 崔桂玉」,『신라문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7, 225-241면.
홍완표・권순형,「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 생활 연구: 염경애 묘지명을 중심으로」,『논문집』, 한경대, 2005, 185-195면.
황수연,「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61-192면.
藤本幸夫,『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1338-1890면.

【Abstract】

## A Study of Female Graves Rubbings on《*Geumseokjipcheop*》

Park, Young-Min*

This paper explores rubbings related to female graves from *The Album of Inscriptions* (金石集帖, Geumseokjipcheop) housed at Kyoto University Library, shedding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ravestones and epigraphs. This paper also aims at analyzing the way female lives and death were dealt with in Chosŏn Korea. The questions this paper raises is to be answer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is paper examines what the aspects of left (左, Zuo) engraved on the husband's tombstone are like. The tombstone building practice is accompanied by the funeral ceremony, and especially in women's funerals, the significance of 'Fuzuo (祔左),' meaning female is buried on the left side based on the husband's grave, and woman obeys her husband even after death, is emphasized. Even during Chosŏn dynasty, however, there were anomalies due to the location of the husband's tomb and geomancy, including suffering from an early death without children. which case woman was returned to her parents who tried to set up a gravestone, and show their daughter's life objectively regardless childbirth or parenting. This phenomenon is also seen in the family of Sarim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Next, it is revealed what kind of woman's monument was erected. Building a monument is a costly, labor-intensive task. Nevertheless, not all female owners of the gravestones are not the wife or mother of a bureaucrat who served a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r a good mother who had children and raised them well. These tombstones indicates that there was a perception that everyone's life should be remembered during the Chosŏn dynasty. And the format of the female gravestones is elucidated; this style does not change much depending on whether the owners of gravestones are male or female. Nonetheless, a unique form was created such as planning and building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a common tombstone for couples.

This paper aims to deepen comprehension of the life and death of women, and the attitude of women toward life and death in the Chosŏn Korea. However, since it was not easy to set up a gravestone, understanding of women's lives and deaths through the monument is probably limited to upper-class women.

Keywords: rubbing, *《Geumseokjipcheop》*, Rubbing, Female Grave, Tombstone Epitaph, Gravestone, Fuzuo (祔左)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6.